

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가?

T. M. 보웬 여사 씀
MRS. T. M. BOWEN

“물 세례”에 대한 문제는 오랫동안 커다란 주제 가운데 하나로 대두되어 왔습니다. 동시대에 과거나 현재를 막론하고 교회의 많은 지도자들에게 문제로 되어왔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물 세례에 대한 고찰을 하자면 먼저 그 중요성과 필요성을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물세례는 예수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사실이 물세례가 하나님의 필요하신 계획이 아니라면 왜 예수님께서 구태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물세례를 받으라고 하셨겠습니까? 물세례가 중요치 않다면 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 가운데 누구도 물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하였겠습니까? 사도행전 10장 48절에 세례를 받도록 명하였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먼저 두가지 사실을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먼저 번의 사실은 예수님께서 정하신 것이나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그의 뜻을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든 못하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 두번째의 사실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몸소 물세례를 받으심으로 그 중요성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칠십마일(116km)이나 되는 곳을 친히 가셔서 물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동시에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이와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리라” 하셨습니다. 마태 3 : 13-16.

혹자는 물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물세례가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명심하여야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말하기를...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

가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벧전 3 : 21). 또 누가복음 7장 30절 말씀에서 우리는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세례양식은 어떠하였는가?

세례란 성경말씀에 의존하여 물에 잠기는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고 하였습니다. 또 사도행전 8장 38절 말씀을 보면 “빌립과 내시가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었다”고 하였습니다. 또 로마서 6장 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하였습니다. 또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바 되고...”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을 장사하려면 우리는 죽은 사람을 땅위에 두거나 땅위에 시체를 놓고 약간의 흙을 뿌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장사한다면 죽은 시체를 땅 속에 묻는 것을 말합니다.

세계 대백과사전 제 1권 610페이지를 보면 “우선 세례란 모두 육신이 완전히 물에 잠기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카톨릭 대백과사전 제 2권 263페이지를 보면 “초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개울이나 못이나 세례장에 가서 물에 잠김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가 유아세례를 제정한 후 물에 잠기는 세례가 불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양식이 물을 세례함을 자 위어 버리는 것으로 바꾸어진 것입니다. (대영 백과사전 11판 제 3권 265-266 페이지 참조)

다음으로 회개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상징한 것입니다. 세례는 주님의 장사됨을 상징한 것입니다. 세례 받을 때 물 속에서 나온다는 것은 주님의 부활을 상징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세례양식은 어떠한 것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서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분명히 이르시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형식적으로 세

례를 받는데 그치라 하지않으시고 “그 이름 안에서 진심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명하셨읍니다. 여기서 이름이란 특별하게 쓰인 것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하신 분을 말한 것입니다. “아버지”, “아들”, “성령”이란 명칭에 그치지 않는 상호 작용을 수 없는 관계임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셨을까요? 물론 위에 말한 때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늘 아래 우리 인간에게는 구원을 줄 또다른 이름은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행전 4장12절 말씀을 보면 위의 말한 이름은 모든 인간 위에 있는 이름이라 했읍니다. 또 빌립보서 2장 9절 11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였읍니다. 그러면 에베소서 1장 21절 말씀을 볼까요. 여기에 보면 “이 이름은 이 세상 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 하였읍니다.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한 말씀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마태 1 : 21) 또 요한복음 5장 43절 말씀을 보면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며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즉 그리스도)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하였읍니다. 다음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볼까요. 여기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라 하였읍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고 책망하셨읍니다. 요 8 : 49. 골로새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한다”고 하였읍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로 4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깨달아야 했었던바와 같이 오늘날 성도들도 모두 하나

님이 하신 말씀을 깨달아야 하겠읍니다. 예수님께서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도 가 고난을 받고 제 삼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신다는 사실이 더할 수없이 증대하라는 것을 알게 되었읍니다. 따라서 누가복음 24장 4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두 포함) 전파될 것이라” 하신 말씀에 의존하여 말씀을 제자들이 두루 외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이들의 전파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위탁하신 것이었읍니다(마태 28 : 19)).

베드로 역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파하라고 명하신 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읍니다. 그는 마음의 문을 열어 하나님 말씀에 깨달았읍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외와같은 명하심을 받고서 그는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 듣는 자들의 마음의 문이 열릴 때까지 쉬지않고 외쳤읍니다. 이 외침을 듣고 스스로의 죄를 깨닫게 된 자들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형제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읍니까?” 하고 물었을때 베드로는 주저하지 않고 담대히 외쳐 말하기를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하였읍니다(행 2 : 38). 이때 이 말씀을 기억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인 자는 세례를 받고 새로 구원을 받은 자가 3천명 이상이 되었읍니다(행 2 : 47).

혹자는 베드로가 이들에게 세례를 받으라고 한 이유는 이들이 유대인들이어서 세례를 통해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는데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후 8년 뒤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갔읍니다. 고넬료와 그의 식구들은 이방인들이었읍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이들에게 다시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명하셨읍니다(주라 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행 10 : 47-48). 여기서 만일 베드로가 오순절 때에 이방인에게 세례주는 것이 잘못된 사실을 느꼈다면 그는 분명히 고넬료의 집에 가기 전에 이방인에게 세례주는 일을 그쳤을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에게 잘못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베드로의 말씀을 듣던 자들이 마음에 찢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었던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겠습니다(행 2 : 37). 다른 사도 가운데는 마태복음을 쓴 마태도 포함됩니다. 사도행전 2 장 14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열 한 사도와 함께 섰더라 했습니다. 열 한 사도 가운데는 마태도 끼여 있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마태가 베드로더러 잘못이 있다고 한 말도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랬지요? 예수님께서서는 요한복음 17 장 6 절에 분명히 이르시기를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곧 사도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하셨습니다. 만일 베드로가 주님께 따르지 않는 것이 있었더라면 마태는 분명 지적당하였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8 장 5 절로 16 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이 성의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였습니다.” 따라서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 고 했습니다. 어떻게 세례를 받았지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받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한이 행한 세례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한이 행한 세례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올바른 것이었습니다. 다만 제도가 바뀌어지고 교권시대가 매우 됐을 따름입니다. 그러면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이 성경강림하신 이후 이십 일년이 지난 뒤 에베소에 갔을 때는 어떠 했는가를 봅시다. 에베소에서 바울은 요한의 제자 몇몇을 만났습니다. 여기에서 바울과 요한의 제자들간의 대화가 사도행전 19 장 1 절로 5 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바울이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

거를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울이 루디아와 그 집 사람들에게 세례를 줄 때 그때까지의 세례 형식이나 양상을 바꾸었으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행 16 : 14-15). 우리는 사도행전 16 장 30 절에서 옥중을 지낸 간수에 관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 간수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말하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하였을 때 바울과 실라는 그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읍니다.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셋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았더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바울이 이들에게 세례를 주었던 방식은 이전에 이용했던 방식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에 잠기게 하였음은 분명합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 28 : 19 과 눅 24 : 47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바울은 세례를 줄 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었습니다. 그가 어떤 제시를 누구에게서 받았을까요? 바울이 가진 복음은 예수님의 제자에게서 본만 것이 아닌 하나님의 계시였음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 장 11 절로 12 절을 보면 바울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 택함받은 자입니다. 바울은 열 베통의 서신을 교회에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3 장 5 절 말씀을 보면 이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권능을 구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4 장 37 절 말씀을 보면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하였습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골로새서 3 장 17 절 말씀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

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간사하라"했을까요? 물세례는 언행이 일치한 때서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음 에베소서 3장14절로 15절을 보면 "이러하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도행전과 바울이 성령을 받은 후에 사도들이 가르치고 행한 것을 알리려고 쓴 복음서를 읽기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20절을 보면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이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세례에 대해 가르치고 몸소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도들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라는 말로 세례를 준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줌으로써 사도들은 마태 28:19의 말씀에 있는 주의 명령을 따랐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8절로 9절에서 바울은 이르기까지 "그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자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의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지어다" 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중대한 경고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태 28:19에 있는 주님의 말씀은 받아들이나 행 2:38에 있는 베드로의 말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합니다. 행 2:38에서 베드로가 한 말은 성령강림 때를 말한 것일까요. 성령 그자체를 말한 것일까요? 베드로는 자기가 뜻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이라 하였습니다.(벧전 1:12)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심으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는 말씀을 명심해야겠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베드로가 사도가 운메 한 사람이고 그에게도 천국의 열쇠가 주어졌만큼 그의 말씀을 믿지 아니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2절을 보면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고 분명히 말

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거룩한 예언자들의 말씀에 따르고 사도들의 계명을 지키는데 힘써야겠습니다. 사도 중의 한 사람인 베드로는 너희가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마가복음 7장8절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다"고 책망 하셨습니다.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역사에 의하면 예수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세례의 양식이 변화된 때는 A. D. 325년 경이라 합니다. (헤이스팅즈의 성서 사전에 있는 성도의 세례사 제1권 4장 24페이지 참조) 형제여! 당신은 주의 명령을 따르십니까? 아니면 인간의 전통을 따르십니까?

사도행전 15장14절로 15절을 보면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므온이 고하였으니 선지자의 말씀이 이와 합하더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골 1:18). 그러면 왜 우리는 그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이는 이 이름 외에는 구원을 우리에게 줄 이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그의 얼굴을 볼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제 22:4

사랑하는 형제여! 우리는 이제 마음문을 활짝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사람이 마음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마태 4:4)는 주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 속에 새겨두고 행하십시오.

Sayadi-al-nas.ae

صيادي الناس

한국 연합오순절교회 선교부

서울특별시서대문구홍제동175-3